

현장시선



오 광 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지역경제의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창업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살아 남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창업 현장의 현실도 녹록치 않다. 창업의 속도만큼 폐업도 이어지고 있으며, 준비 없는 시작이 과도한 부채와 경영 실패로 돌아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소상공인 한 사람의 좌절을 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이제는 창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어떻게 '질적 생존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창업의 생존력을 키우는 제주신용보증재단

고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컨설팅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기에는 노무·세무와 디지털 마케팅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성장기에는 절세전략과 AI 기반 디지털 전환, 업종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재도전기에는 재무 진단과 금융복지상담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회생을 돕는다. 창업의 첫걸음부터 시장 안착과 재도약까지 함께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라 믿기 때문이다. 현장이 요구하는 실질적 자생력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제주에는 다양한 창업 교육기관이 있지만, 재단의 강점은 교육과 컨설팅을 정책금융까지 직접 연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무교육과

함께 현장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실질적인 자금지원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교육 이수자에게는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율 감면, 신용평가가 가점 등을 제공해 배움이 실제 경영 개선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돕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금융조기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버 도박과 고금리 사금융 등 금융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재단 산하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는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학교를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11월에는 퀴즈를 통해 금융지식을 익히는 '금융골든벨'도 개최한다. 건강한 금융 인식을 지닌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

요한 투자다. 이 같은 현장의 노력이 열매를 맺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창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으나,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이수하고 충분히 준비한 창업자가 정책금융에서도 우대받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일단 창업하고 보자'가 아니라 '충분히 배우고 준비한 뒤 창업하자'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 교육은 창업의 가장 강력한 안전판이자 생존 전략이다. 많이 창업하는 지역보다 준비해서 창업하고 오래 살아남는 지역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제주에 필요한 창업정책인 만큼 제주신용보증재단도 준비된 창업자의 시작부터 성장과 재도약까지 함께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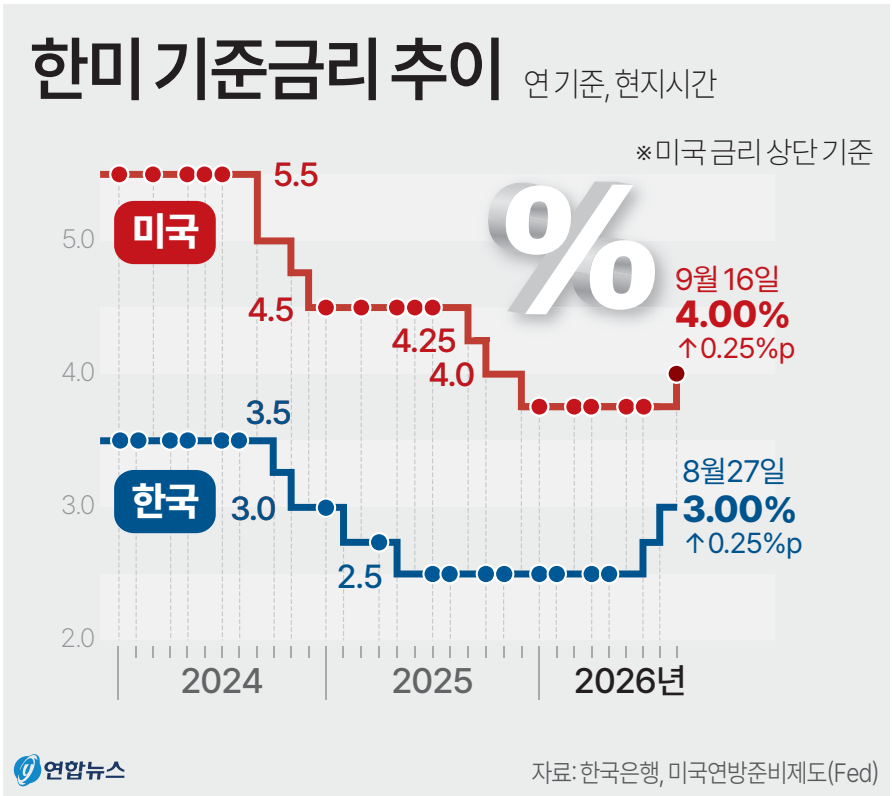
사설

G20 정상회의 유치전, 제주 강점 전략 필요

오는 2028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제주도는 최근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개최 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유치 전담반 구성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제주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를 주제로 한 이날 발대식은 제주유치에 대한 도민의 의지와 염원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도민과 각계각층의 참여를 넓혀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새로 만들어야 하는 개최자가 아닌 이미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를 핵심 유치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중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회의·숙박시설이 집중됐고 20개의 정상급 숙박시설과 132개의 회의실을 갖춰 3만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지리적 특성상 출입 경로가 제한적이어서 접근 통제와 경호가 수월하다. 해상 방어체계를 바탕으로 정상급 안전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어필된다. 제주도는 현장 캠페인을 통해 공감대를 넓히고 정부 선정 절차에 대응하며 신청서와 제안서를 준비할 방침이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메르드급 행사다. 그래서 G20 정상회의 유치에 제 주변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는 많은 국제행사 개최 경험도 있지만 유치에 실패한 경험도 있다. APEC 정상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유엔해양총회 유치에 도전했으나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제주도는 유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제주만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한라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옥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열린마당

추석 명절, 혈당·혈압 지키는 장보기와 조리법



강민숙
제주대학교병원 영양팀장

선선한 바람과 함께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명절은 즐겁지만,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진 이들에게는 건강 관리의 고비가 되기도 한다. 송편, 전, 갈비찜, 잡채 등은 기름과 당분, 나트륨이 많아 평소보다 과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명절 음식을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 건강한 명절 식탁은 장을 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고기와 전 재료뿐 아니라 채소, 버섯, 두부 등을 충분히 준비해 식이섬유와

칼륨 섭취를 늘려보자. 조리할 때는 전을 얇게 부치고 기름 사용을 줄이며, 갈비찜이나 불고기기는 설탕과 물엿을 줄이고 배나 양파 등으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것이 좋다. 나물과 국은 소금과 간장 사용을 줄이고 마늘, 파, 후추 등으로 맛을 더하면 나트륨 섭취를 낮출 수 있다. 식사할 때는 나물과 채소를 먼저 먹고 생선이나 고기 등 단백질 반찬을 곁들인 뒤 밥이나 송편을 먹어보자. 명절 음식은 종류가 많아 조금씩 맛보다 보면 과식하기 쉬우므로, 먹을 만큼만 접시에 덜어 양을 확인하며 천천히 먹는 습관이 필요하다. 명절 음식은 가족을 향한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이다. 올 추석에는 무조건 참기보다 장보기부터 조리법, 식사량까지 현명하게 조절해 보자. 정성은 담고 몸의 부담은 줄인 건강한 명절 식탁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따뜻한 방법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관광, 위기 요인별 맞춤형 대책 서둘라

울릉도가 신열을 앓고 있다. 관광객이 매년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군수가 사과를 하고, 가격을 낮춰도 호전될 기미가 없다. 울릉도 관광객은 2022년 46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일로다. 2023년 40만여 명, 2024년 38만여 명에 이어 2025년엔 34만여 명으로 줄었다. 올해 1~7월엔 17만2000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7.5% 감소했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높은 관광비용과 최악의 서비스, 여객선 운항 중단 등이 맞물린 결과다. 관광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오징어 어획량마저 급감하면서 여파는 증폭되고 있다. 제주 관광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9월 1~15일 사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55만42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4% 감소했다. 외국인은 5.0%(5700명) 증

가했지만 내국인은 10.3%(5만100명) 감소했다. 내국인은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5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내선 공급 작적이 준 데다 유류할증료가 급등한 여파다. 8월 중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이후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관광 인프라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요인별 맞춤형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항공좌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유류할증료 지원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유류버들의 제주 여행을 지원하거나 SNS의 왜곡·과장된 보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도 늦춰서는 안된다. 내·외부 요인에 대한 적극 대처 없이는 위기의 제주관광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울릉도가 우리 제주에 주는 교훈이다.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전문 제주 토박이

제주산담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혈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예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